

입자결합모델을 이용한 불연속체 암반의 역학적 물성 평가 Evalu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discontinuous rock masses by using a bonded-particle model

박의섭¹⁾, Eui-Seob Park, 류창하²⁾, Chang-Ha Ryu, 배성호³⁾, Seong-Ho Bae

- ¹⁾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반안전연구부 선임연구원,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
²⁾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반안전연구부 지하공간연구실장, Director,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
³⁾ (주)지오제니컨설팅 이사, Director, GeoGeny Consultants Group Inc.

SYNOPSIS : Although the evalu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behavior of discontinuous rock masses is very important for the design of underground openings, it has always been considered the most difficult problem. One of the difficulties in describing the rock mass behavior is assigning the appropriate constitutive model. This limitation may be overcome with the progress in discrete element software such as PFC, which does not need the user to prescribe a constitutive model for rock mass. Instead, the micro-scale properties of the intact rock and joints are defined and the macro-scale response results from those properties and the geometry of the problem. In this paper, a 30m x 30m x 30m jointed rock mass of road tunnel site was analyzed. A discrete fracture network was developed from the joint geometry obtained from core logging and surface survey. Using the discontinuities geometry from the DFN model, PFC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starting with the intact rock and systematically adding the joints and the stress-strain response was recorded for each case. With the stress-strain response curve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discontinuous rock masses were determined and compared to the results of empirical methods such as RMR, Q and GSI. The values of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and peak strength are almost similar from PFC model and Empirical methods. As expected, the presence of joints had a pronounced effect on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rock mass. More importantly, the mechanical response of the PFC model was not determined by a user specified constitutive model.

Key words : PFC, discontinuous rock mass, mechanical property, simulation,

1. 서론

터널 및 지하공동의 설계에 있어서 불연속체 암반의 역학적 물성 및 거동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할 지라도, 이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항상 간주되어 왔다. 그 이유는 대규모 현장시험이 자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RMR, Q 및 GSI 등의 경험적 암반지수와 강도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암반내 절리의 존재는 신선암에 비하여 암반의 강도를 저하시킨다는 것은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강도 저하는 절리의 기하학적 형태 및 신선암과 절리의 물성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좌우된다. 현재까지, 암반 강도 및 변형 특성은 Bieniawski's RMR(1976), Barton's Q-Values (1974)의 암반분류 시스템과 같은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주로 평가되었다. 최근에는 Hoek et al.(1995)에 의하여 다양한 조건하의 암반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인 지질강도지수(Geological Strength Index, GSI)가 소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현지 암반의 물성값들은 대상지역내 노두나 시추공들에서 행해진 각종 조사, 현장시험 및 시추 코어를 이용한 실내시험들로부터 유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규모 현지암반을 대상으로 역학적 물성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하구조물의 안정성 해석 및 평가에 요구되는 현지 암반의 역학적 물성을 평가하는 주된 방법은 RMR, Q 및 GSI 등의 암반분류 시스템을 이용한 경험적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현장 및 실내에서 수행되는 여러 시험들로부터 구한 결과들은 단순한 보조차원으로만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경험적 관계를 이용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 경험적 관계의 유효성: 경험적 관계들은 기본 역학 (basic mechanics)으로부터 유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최초로 개발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만 유효성이 확신되어진다. 특히 새로운 건설환경이 상대적으로 독특한 것이라면, 경험적 접근은 사전에 확인될 수가 없고, 이들의 적용은 적절한 관계식의 선택 및 경험자의 조언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응력 의존적인 변수: 현지 암반의 역학적 물성은 일반적으로 응력 의존적인 관계로 어떠한 경험적인 관계도 암반 응력값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Q 시스템은 SRF 요소를 통하여 응력 의존성을 고려하지만, RMR 시스템은 암반 응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변형계수와 같이 결정되어져야 할 입력 변수들이 응력 수준이 변하는 수치해석에 사용될 때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입력 자료의 불확실성과 공간적 변화: 암반내 Q 또는 RMR 분포를 예측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알려진 입력 자료를 가지고 물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내포된 불확실성과 입력 자료의 3차원적 분포에서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는 다른 영역내의 Q와 RMR 예측에서의 공간적 변화성은 주어진 자료의 통계학적 분포로부터 평가되어 지고, 예측의 신뢰도는 사용된 자료의 양을 근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암반분류시스템은 오랫동안 지하구조물 (특히, 터널)의 설계분야에 폭넓고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경험적 암반분류법은 현지 암반의 역학적 물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현지 암반의 변형 물성과 강도는 신선암 뿐만 아니라 균열망(균열군의 숫자, 방향 및 밀도 등)과 연약대의 존재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신선암과 균열의 특성은 암반의 역학적 물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지 암반의 역학적 물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경험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지역내의 현장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즉, 암반의 역학적 거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암종별 신선암의 거동특성, 불연속면의 역학적 특성 및 기하학적 특성(불연속면의 방향 및 빈도 등)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암반물성을 이론적-수치해석적 기법을 통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즉, 암반의 역학적 물성을 신선암 및 불연속면의 역학적 거동과 불연속면의 기하학적 형상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암반 거동을 모사함에 있어서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적절한 구성 모델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나, 이 한계는 사용자가 암반에 대한 구성 모델을 미리 선언할 필요가 없는 PFC와 같은 개별요소 프로그램의 발달과 함께 극복될 것으로 여겨진다. 대신에 신선암과 절리의 미세 물성이 주어지고, 이러한 물성과 모델의 기하학적 형상으로부터 거시적인 거동이 계산되어진다.

미세(입자) 규모와 절리암반의 대규모에서의 개별적인 이방성 및 불연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인공재료의 전체적인 거동연구를 허용하는 수치 모델링에서의 최근 개발속도는 이러한 재료들에 관한 실험실 결과의 해석 및 적용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구성방정식 및 파괴기준을 적용하는 기존의 연속체(FLAC) 및 불연속체(UDEC) 해석 프로그램과 달리, 암석재료의 변형 및 파괴거동이 변화하는 미세구조의 함수로 표현되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PFC2D (Particle Flow Code)를 사용하기로 한다.

2. PFC 모델링

2.1 배경

UDEC과 같이 사용자가 선언하는 구성모델에 의존하는 수치 모델의 한계점중의 하나는 해석결과가 신선암 및 균열에 주어진 구성모델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사용자가 암반에 대한 구성모델을 미리 선언할 필요가 없는 PFC와 같은 개별요소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함께 극복될 것이다.

인장결합 강도와 전단결합 강도를 선언함으로써, 미세강도 물성은 지반공학자에게 친숙한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암석분야에서의 개별요소법의 초기 적용중의 하나는 캐나다 AECL의 Mine-by test tunnel 주변에서 관찰된 취성과괴(brittle failure)의 모델링에 관한 것이었다 (Martin et al. 1996). PFC를 취성과괴의 모델링에 사용하는 최초의 시도는 1995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PFC 코드에서의 수많은 개선을 가져왔다. 이러한 모델링 노력중에 기본적인 "PFC Model for Rock"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개별요소법을 사용하는 입자에 근거한 시스템의 동적인 거동을 모사하는 수치 실험을 제공하였다.

Itasca Consulting Group, Inc.에서 개발된 PFC2D가 신선암 샘플 및 30m x 30m 암반을 모델화하는데 사용되었다. PFC2D 모델은,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접촉점에서만 상호작용하는, 개별적이고 일정하지 않은 크기의 원형 입자 집합체의 역학적 거동을 모사한다. 입자들의 이동 및 상호작용은, Cundall & Strack(1979)에 의해 제시된 바와 같이, 개별요소법을 사용하여 모델링된다. 또한 PFC 모델은, 변형이 응력과 변형률간의 관계에 의해 선언되는 함수가 아니라 미세구조의 변화에 관련되는, 직접적이고 손상 형태의 수치모델로 구분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PFC 모델을 parallel bonded model로 간주하여 해석하였다. 이 모델에 요구되는 미세 물성은 입자와 결합체(bonding material)의 강성 및 강도 변수에 관련된 것이다. PFC에서의 어려움은 암반 거동을 대표하는 미세 역학적 변수를 결정하는데 있다. 다행스럽게도 Potyondy & Cundall(2001)은 Lac du Bonnet granite의 미세와 거시 물성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 연구결과는 AECL 부지내의 granite에 대한 미세 변수를 설정하는데 사용되었다.

2.2 Particle Flow Code

지반이나 구조물 등의 어떠한 대상을 수치해석 모델링함에 있어, 유한요소법이나 FLAC과 같은 유한차분법과는 달리 대상을 개별적인 입자들의 집합체로 모델링하는 기법이 개별요소법이다. PFC(Particle Flow Code)는 이 개별요소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Cundall 및 Strack (1979)에 의해 언급된 바와 같이, 개발된 입자유동 해석 프로그램으로서 정적 및 동적거동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Itasca Consulting Group, Inc.의 Cundall 등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다른 개별요소프로그램인 UDEC이나 3DEC에서는 모델의 구성요소가 다각형인데 비하여 PFC에서는 원형 입자로 구성되며, UDEC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원형입자간의 접촉여부 판단이 다각형 요소일 경우보다 간단한데 이는 곧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 기본적으로 모델링되는 변위의 크기에 제한이 없다.

- UDEC이나 3DEC 등에서는 암반블록이 파괴 분리될 수 없는 모델링인 반면 PFC에서는 블록이 파괴되는 모델링이 가능하다. 따라서 터널이나 지하 채굴적 천반의 부분적 파괴 및 붕락양상 등을 시각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 하지만, PFC를 이용한 블록 시스템의 모델링이 가지는 단점은 블록 경계면이 평면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원형 입자의 특성상 경계면에 울퉁불퉁한(bumpy) 면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PFC 해석모델은 원형입자요소의 집합체로 구성되며, 각 요소입자는 강성체로서 입자간에는

점 접촉형태를 가지며 접촉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위 중첩이 허용된다. 이 중첩량은 접촉력과 힘-변위 관계식에 의해 계산된다. 또한 접촉 입자간의 분리파괴는 규정된 결합력(인장강도 및 전단강도)과 작용하는 힘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PFC 해석의 기본적인 계산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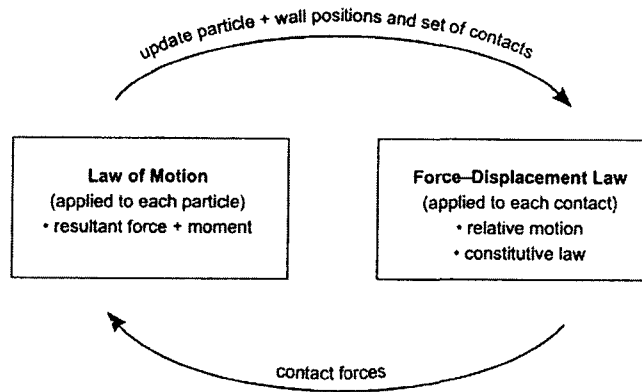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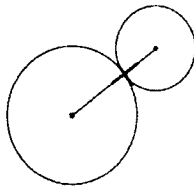


그림 1 PFC 해석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계산 과정

원형입자의 결합체로 이루어지는 해석모델의 각 접촉입자간의 결합형태는 그림. 2와 같이 접촉 결합 (contact bond) 및 병렬 결합 (parallel bond)의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접촉 결합 모델에서는 인접요소간의 접촉점에서 일정한 수직강성 및 전단강성을 갖는 한 쌍의 스프링 거동으로 표현되는데 이 스프링은 규정된 인장강도 및 전단강도를 가진다. 반면에, 병렬 결합 모델에서는 입자요소가 구 또는 실린더 형태로 간주되며, 원 또는 사각 단면에서의 접촉 거동을 나타낸다. 접촉 결합에서는 힘만이 전달되는데 반해 이 모델에서는 힘과 모멘트가 모두 전달되며, 원 또는 사각단면 형태의 접촉면상에 균등하게 분포하는 탄성스프링의 집합체로 거동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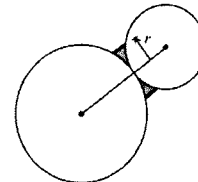
접촉 결합 모델에 있어서 접촉요소간의 수직 및 전단 변형과 파괴조건은 그림 3과 같다. 접촉점에서 발생하는 인장력이 규정된 수직방향의 결합강도 즉, 인장강도에 도달하면 결합은 깨어지고 수직 및 전단 접촉력은 0으로 된다. 전단 접촉력이 규정된 전단방향의 결합강도 즉, 전단강도에 도달하면 결합은 깨어나 접촉력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림 3에서 F^n 은 수직 접촉력으로 $F^n > 0$ 이면 인장을 의미한다. U^n 은 수직방향 상대변위로서 $U^n > 0$ 이면 두 요소가 중첩됨을 의미한다.

contact bond



*models adhesion over vanishingly small area of contact point
(does not resist moment)
breaks if normal or shear force exceeds bond strength*

parallel b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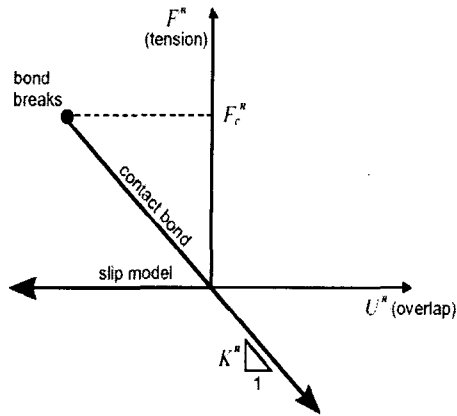


*models additional material deposited after balls are in contact
(does resist moment)
breaks if normal or shear stress exceeds bond streng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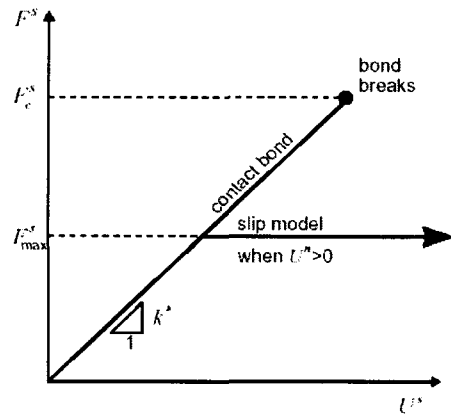
(a) Contact bond model

(b) Parallel bond model

그림 2 입자요소간의 2가지 결합 형태



(a) 수직접촉력과 파괴조건



(b) 전단접촉력과 파괴조건

그림 3 접촉요소간의 변형 및 파괴 조건

3. PFC2D 모델

3.1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불연속체 암반의 역학적 물성 및 파괴후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PFC 해석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각 해석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각각의 절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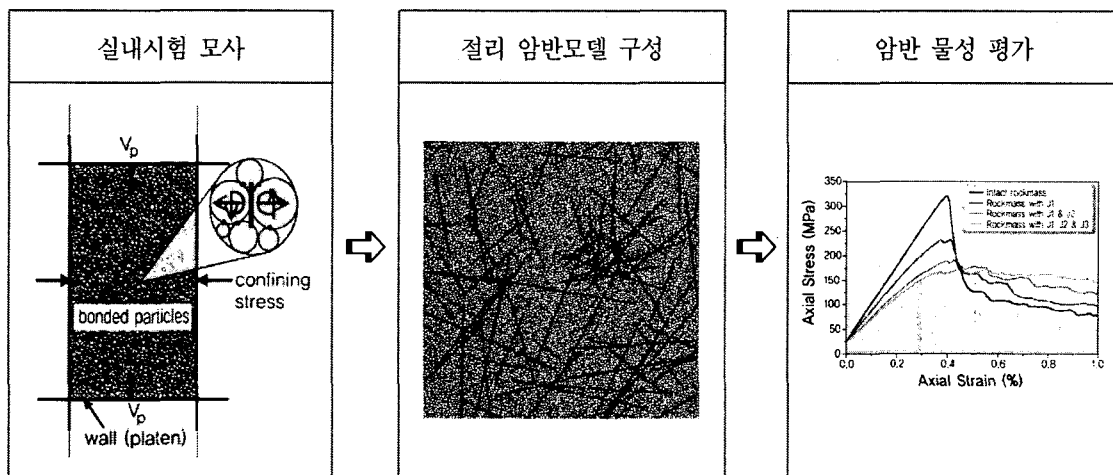


그림 4 불연속체 암반의 PFC 해석절차

3.2 신선암을 위한 PFC 모델

PFC2D와 PFC3D로 알려져있는 2차원 및 3차원 "particle flow code"는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입자와 입자간의 상호작용과 결합강도의 형태로 실험실 압축시험을 해석하는데 직접 적용되었다 (Itasca 1999a, 1999b). 암석의 PFC2D 모델의 상세한 언급은 Potyondy et al (1996a)와 Potyondy & Fairhurst(1999)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PFC2D 시편은, 낮은 locked-in stress을 가지는 촘촘하게 채워진 결합입자 집합체를 내포하는 사각형 시편을 만드는, specimen-genesis 과정을 통하여 생성되었다. 압축시험의 모사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첫째, 암석시편모델은 입자들간의 접촉점에서 서로 결합된 입자의 크기를 가진 입자들의 집합체로 생성된다. 이 시편모델은 시편의 단축압축강도에 비하여 매우 낮은 locked-in stress를 가지고 생성된다. 둘째, 시편모델은 둘러싼 벽면(wall)에 의해 하중을 받게 되는데, 상부와 하부 벽면은 재하판 (loading platens)으로 작용하고 측벽면은 선언된 봉압(confining stress)을 유지하도록 작용한다.

본 해석에서는 동일한 입력 변수를 가지나, PFC내에 생성되는 원형 입자를 Random Generation 기법을 이용하여 5개의 PFC 무결암 모델을 생성하였다. 이는 암석내의 불균질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치해석코드와는 다른 장점을 가진다. 즉, 동일한 입력물성을 적용하더라도, 모델내에 생성되는 입자배열에 따라 다른 역학적 물성 및 거동을 보이므로, 암반과 같은 불균질 재료를 모사하는데 적합하다. 그림. 5는 PFC2D 모델에 대한 이축압축시험 수치모사 개념과 PFC2D 모델의 형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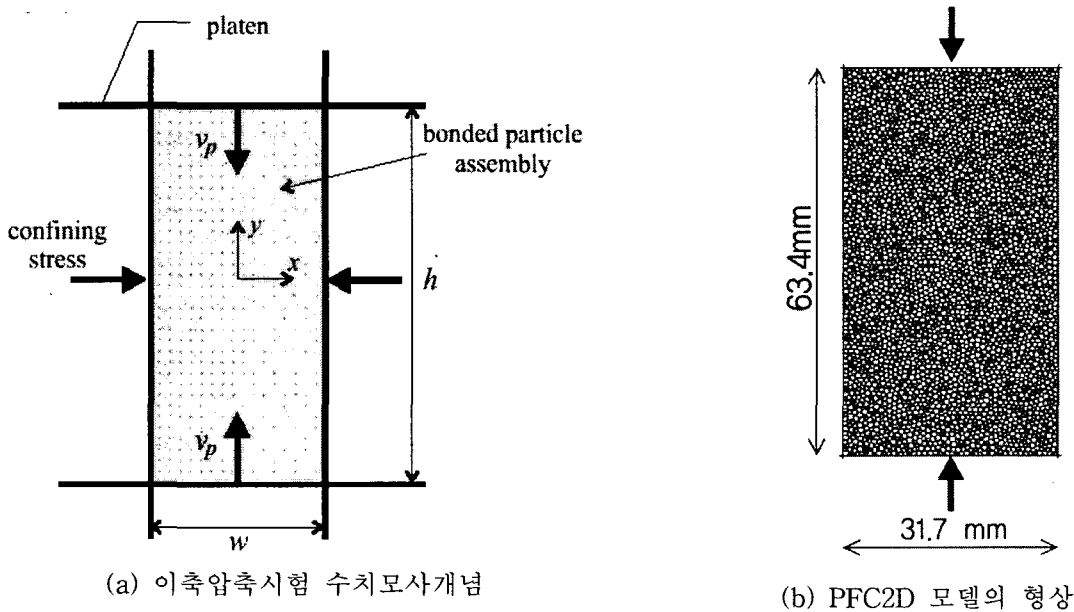


그림 5 이축압축시험 수치모사 개념과 신선암을 위한 PFC2D 모델

PFC2D 모델은 구속 및 미구속 조건하의 거동을 예측하고, 영률 및 단축압축강도 등의 형태로 신선암 샘플의 강도 및 변형특성을 수치적으로 맞춘다. 특정한 암석의 역학적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수치모사를 통하여 교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정은 영률 및 단축압축강도와 같은 거시 물성으로부터 모델의 미세-역학적 변수를 찾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정 과정을 통하여 모델의 거동은 실험실에서의 암석 샘플의 거동과 비교하고, 다시 모델의 미세 물성을 조정하는 반복적인 방법을 통하여 최대한 일치시키게 된다.

무결암의 실내시험(간접 인장, 단축 및 이축압축시험)을 모사하는 PFC 해석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과정은 PFC 모델의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러 번의 trial and error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다.

- a) 시추코어를 대상으로 실험실 시험에서 구해진 각 암종별 무결암의 역학적 물성을 분석한다.
- b) 무결암 시료와 동일한 크기의 PFC 무결암 모델을 생성한다.
- c) PFC 무결암 모델에 사용되는 미세 물성(micro-properties)을 변화시키면서, 여러 번의 간접인장, 단축 및 이축 압축시험의 수치 모델링을 수행한다.
- d) 수치모델링으로부터 구해진 역학적 물성이 실제 무결암의 역학적 물성에 근접하는 PFC 무결암 모델의 미세 물성을 구한다.

본 해석에서는 병렬 결합(parallel bond)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른 무결암 모델에 요구되는 미세 물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PFC 무결암 모델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미세 물성

미세 물성 항목	값	비 고
R_{min} (mm)	100.0	최소 볼 반경
R_{min} / R_{max}	1.66	최소/최대
Particle density, ρ (kg/m ³)	2,630	
Particle contact modulus, E_c (GPa)	62.0	볼 물성
Particle normal/shear stiffness, K_n / K_s	2.5	"
Particle friction coefficient, μ	0.50	"
Particle bond radius multiplier, $\bar{\lambda}$	1.0	"
Parallel bond normal/shear stiffness, K_n / K_s	2.5	결합 물성
Parallel bond modulus, E_c (GPa)	62.0	"
Parallel bond normal strength, $\bar{\sigma}_c$ (MPa)	157±36	"
Parallel bond shear strength, $\bar{\tau}_c$ (MPa)	157±36	"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5회의 수치해석을 통하여 PFC 무결암 모델의 역학적 물성을 표 2와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하였으며, 수치모사를 통하여 수치모델의 응력-변형률 곡선과 파괴형상을 그림. 6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2. 신선암에 대한 실내실험과 PFC2D 모델링 결과

항목	실내실험값	PFC 모델링값	비고
영률 (GPa)	41.3	41.1±1.2	5회 수치모사
포아송비	0.24	0.237±0.02	"
단축압축강도(MPa)	150.0	151.8±1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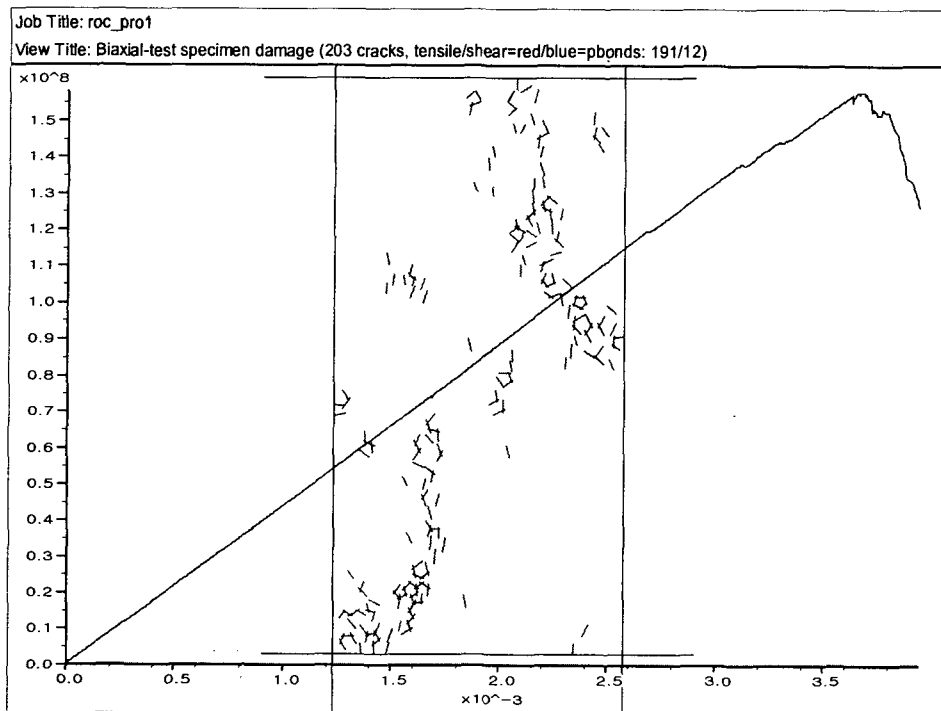


그림 6 PFC 무결암 모델의 파괴형상 및 응력-변형률 곡선 (단축압축시험)

3.3 불연속체 암반을 위한 PFC 모델

Staub et al(2002)에 의하면, 대심도 핵폐기물 처분장을 위한 암반역학적 고려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치모델에서 30m x 30m의 해상을 가진 터널 규모는 “repository scale”의 측면에서 암반역학적 측면을 고려하는데 충분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균열 암반의 크기는 30m x 30m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900m²의 암반블록은 충분한 개수의 대규모 및 소규모 균열을 포함할 수 있다.

상세 지표지질조사 결과와 시추공내 시험에서 얻어진 다양한 절리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업 구간내 해석영역의 3차원 절리망을 구성하고, 이를 근거로 2차원 절리 트레이스망을 구현한다. 이후 구성된 2차원 트레이스망을 근거로 30m x 30m의 PFC 암반모델내에 2차원 절리들을 생성시킨다(그림 7). 또한 3차원적인 절리의 분포특성이 터널축 방향에 따라 2차원상에 어떻게 나타나며, 이로부터 구해진 역학적 물성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터널축 방향으로부터 0°~180°까지 20°간격으로 총 9가지 경우의 2차원 절리 트레이스망을 구하였다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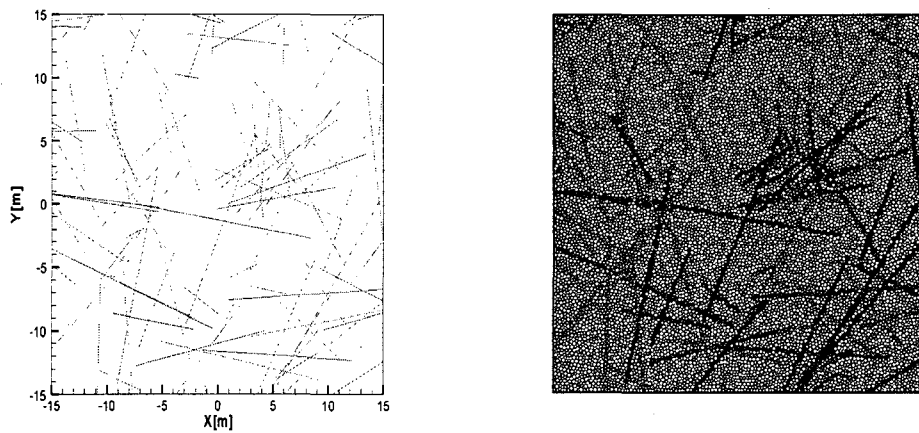


그림 7 2차원 절리 트레이스망 및 PFC 암반모델의 형상 (30m x 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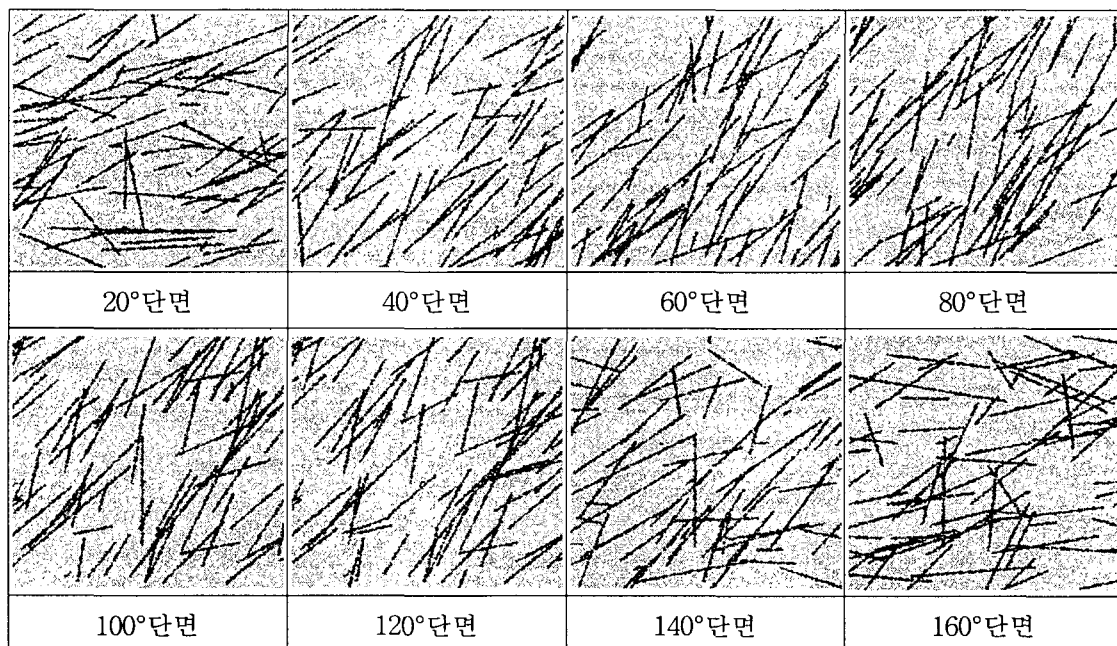


그림 8 터널축과의 횡단 교차각별 2차원 PFC 모델의 형상

4. 절리암반 모델의 물성평가 해석

절리암반 모델의 역학적 물성 및 파괴후 거동을 파악하고자, 무결암에 해당되는 PFC 입자모델은 PFC 무결암 모델의 미세물성 (micro-properties)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절리에 해당되는 PFC 입자모델은 무결암에 비하여 상당한 약한 물성을 가지므로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미세물성을 적용하였다.

구성된 절리모델에 대해 단축압축시험 수치모사를 통하여 20°각도별 변형계수, 최대강도, 포아송비 등의 역학적 물성을 구하고 (표 3, 그림 9), 봉압 조건을 달리하는 이축압축시험 수치모사를 통하여 Mohr-Coulomb 파괴기준에 요구되는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구하였다 (표 4). 그림. 10은 이축압축시험을 통해 파괴된 절리암반모델의 형상 및 응력-변형을 곡선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파괴면은 주로 절리를 따라서 발생하며, 파괴후 응력곡선은 무결암과 달리 소성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암반내에 존재하는 절리는 암반의 역학적 물성뿐만 아니라 파괴거동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3. PFC 해석을 통해 구해진 절리암반의 역학적 물성

적용교차각	변형계수(GPa)	최대강도(MPa)	포아송비
0°	18.77	64.19	0.200
20°	18.48	50.67	0.316
40°	21.27	51.94	0.295
60°	22.09	46.79	0.287
80°	21.54	45.24	0.312
100°	21.34	46.79	0.296
120°	21.65	45.69	0.295
140°	21.02	52.07	0.290
16°	19.01	54.41	0.218
평균	20.57±1.48	50.86±5.96	0.279±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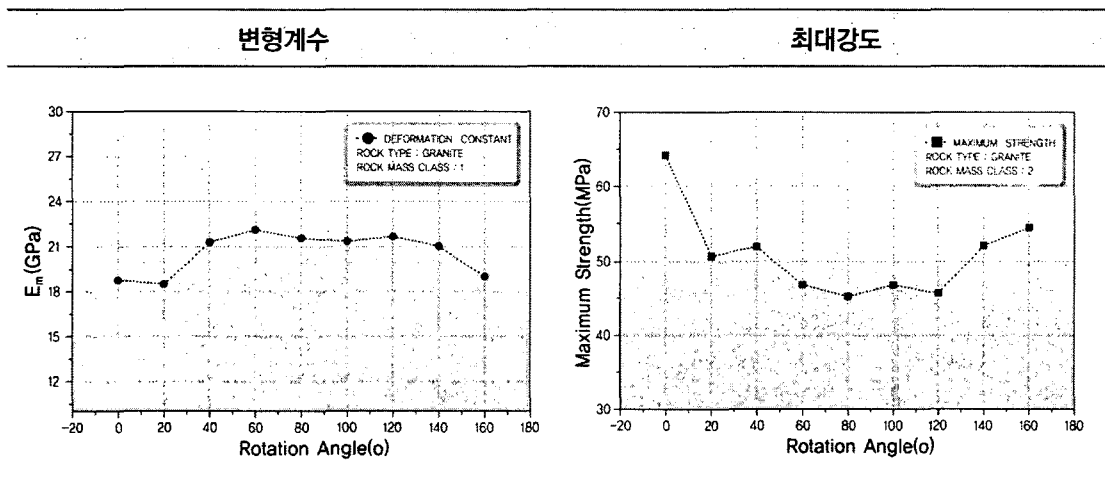


그림 9 터널축과의 교차각도에 따른 변형계수 및 최대강도의 변화

표 4. 봉압 조건에 따른 절리암반의 역학적 물성 (Mohr-Coulomb 파괴기준)

적용봉압	변형계수 (GPa)	최대강도 (MPa)	포아송비	점착력 (MPa)	내부마찰각 (°)
S3 = 0.0 MPa	21.02	52.07	0.290	11.20	41.04
S3 = 2.5 MPa	21.60	60.66	0.277		
S3 = 5.0 MPa	22.06	70.18	0.271		
S3 = 10.0 MPa	22.89	87.14	0.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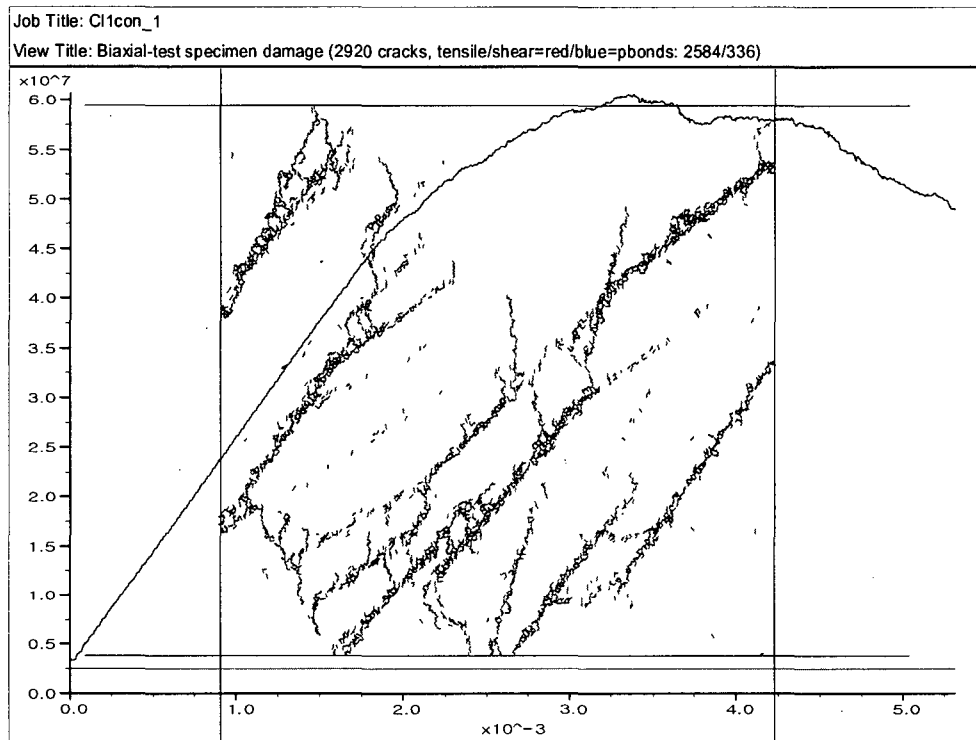


그림 10 절리암반모델의 파괴형상 및 응력-변형을 곡선

5. 결론

1) 기존의 수치해석법에선 특정한 구성방정식 및 파괴기준을 사용함에 따라 암반의 역학적 거동이 미리 결정되는 반면, PFC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 없는 미세 구조(ball)간의 역학적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이런 특성은 기존의 수치해석법에 의해서는 정확한 파괴거동을 규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즉, 최대 강도이후의 파괴후 거동을 모사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터널축 방향으로부터 0°~180°까지 20°간격으로 총 9가지 경우의 2차원 절리 트레이스망을 근거로 구성한 절리암반 모델의 암반 물성을 산정한 결과, 변형계수는 거의 비슷한 범위내에 있었으나, 최대강도의 경우는 교차각도에 따라 상당히 다른 값을 보였다.

3) PFC 결과로 산정된 암반의 최대강도는 입력값으로 사용된 무결암 강도인 150 MPa에 비해 34% 정도로 강도값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RMR이 90 이상인 암반의 압축강도가 무결암

강도의 40 ~ 50%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해석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대규모 암반영역을 대상으로 PFC 기법을 적용한 결과, 절리암반모델의 파괴면은 주로 절리를 따라서 발생하며, 파괴후 응력곡선은 무결암과 달리 소성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암반내에 존재하는 절리는 암반의 역학적 물성뿐만 아니라 파괴거동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차후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절리암반의 역학적 물성 및 파괴후 거동을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Andersson, J.; R. Christiansson.; J. A. Hudson (2002), *Strategy for Development of a Descriptive Rock Mechanics Model: Site Investigation*. SKB Technical Report TR-02-01, Stockholm, Sweden.
2. N. R. Barton.; R. Lien; J. Lunde (1974), Engineering classification of rock masses for the design of tunnel support. *Rock Mech.* 6(4): pp189-239.
3. Z. T. Bieniawski (1976), Rock mass classification in rock engineering. In *Exploration for rock engineering,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eds. Z. T. Bieniawski, 97-106. Cape Town: Balkema.
4. P. A. Cundall; O. D. L. Strack (1979), A discrete numerical model for granular assemblies. *Geotechnique*. 29: pp47-65.
5. P. A. Cundall (2001), A discontinuous future for numerical modelling in geomechanics? *Proceedings of the Institute of Civil Engineers, Geotechnical Engineering* January Issue 1, pp41-47.
6. Hoek, E., Kaiser, P. K. & Bawden, W. F. 1995. *Support of underground excavations in hard rock*. Rotterdam: Balkema.
7. Itasca Consulting Group Inc. 1999. *PFC2D Particle Flow Code in 2 Dimensions*, Minneapolis: Itasca.
8. Martin, C. D. & Read, R. S. 1996. AECL's Mine-by Experiment: A test tunnel in brittle rock. *Proceedings of the 2nd N ARMS Symposium*, Montreal. Edited by M. Aubertin, F. Hassani & H. Mitri. Vol 1 pp. 13-24. A. A. Balkema, Rotterdam.
9. Potyondy, D. O. & Cundall, P. A. 2001. *The PFC Model for Rock: Predicting rock-mass damage at th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Itasca Consulting Group, Inc. Report to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AECL), Report No. 06819-REP-01200-10061-R00.
10. Potyondy, D. O. & Fairhurst, C. E. 1999. The Value of Numerical Modeling in Understanding the Complete Load/Deformation Behavior of Cohesive-Frictional Materials. *Nondestructive and Automated Testing for Soil and Rock Properties, ASTM STP 1350*, W. A. Marr and C. E. Fairhurst, Ed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pp290-299.
11. Staub, I., Fredriksson, A. & Outters, N. 2002. *Strategy for a Rock Mechanics Site Descriptive Model: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theoretical approach*. SKB Report R-02-02, Stockholm, Sweden.
12. Wang, C., Tannant, D. D. et al. 2003. "Technical Note: Numerical analysis of the stability of heavily jointed rock slopes using PFC2D."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40: pp415-424.
13. Wanne, T. 2002. Rock strength and deformation dependence on schistosity: Simulation of rock with PFC3D. Itasca Consulting Group, Inc. Report to POSIVA Oy, POSIVA 2002-05.